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1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아비담마 길라잡이	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2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성운 대사	운주사	7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것	동명 스님	조계종출판사
3	치유하는 유식읽기	서광 스님	공간	8	낡은 옷을 벗어라	성운 대사	운주사
4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9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있다	인현 스님	마음의 숲
5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10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책세상

"까치발로 절 담장 엿보니, 時時에 스승 만나"



만화경
이란 지음
사유수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17년말로 기억된다. 〈만화경〉 저자인 수덕화 이란 보살이 하루는 찾아와 담장 너머로 엿본 선지식이야기들을 만화로 연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좋은 인연들 덕분에 젊은 날 불교를 만났고, 그때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찾아 나섰다"며 "그러면서 틈틈이 까치발을 하고 절 담장 안을 엿보았는데, 거기서 시시(時時)에 스승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곳에 도반이 있었다. 바로 이 분들이 선재동자가 찾아 다닌 선지식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수덕화 보살의 제안을 듣고 여러날을 고민했다. 과연 당대 선지식들의 진면목을 짧은 지면, 특히 만화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그리고 수덕화 보살은 연재를 하게 되면 제목을 '이란 보살의 밥짓는 소리' 로 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듣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하필 '밥짓는 소리' 일까? 그 의문은 곧 수덕화 보살의 설명을 듣고 풀어졌다.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평생 밥을 짓다보니 밥사가 되고, 또 법사가 되었다. 매일 쌀을 씻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 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도(道)가 사다리 놓고 가야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이제 조금 알겠고, 처처(處處)가 부처라는 것도 조금 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이란 보살의 밥짓는 소리' 란 제목으로 1년동안 연재를 했다. 이번에 나온 〈만화경〉은 그 연재물들을 묶은 것이다. 책은 총 3장에 걸쳐 46편의 잠언글 형식으로 구성돼 짧은 시간에도 금방 술술 책장이 넘어간다는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책은 혜암 서암 숭산 서옹 성수 고우 무진장 스님 등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한국불교 근현대를 이끈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을 비롯해 월탄 대원 법산 명성 스님 등 생존에 계신 선지식들의 촌철살인 같은 가르침을 핵심만 추려 너댓줄로 정리해 놓았다. 이외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저자에게 고마움과 감동을 전해준 소윤아가, 야채장수 아저씨, 박순금 아줌마 등도 소개했다.

〈만화경〉은 올해 탄생 101주년을 맞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인사 해인총림 제6대 방장을 지내시다 2001년 열반하신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 선승(禪僧) 혜암 큰스님의 일화로부터 시작된다.



▲저자 수덕화 **이란 보살**은?
승만경 가정법회 공부모임인 '여여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맡으며 20여년 동안 정진했으며, (사)대한불교 법사회 법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 사임당 · 율곡 장학재단 이사, 시문회 회원 등을 맡고 있다.



담장 너머로 엿본 선지식과 친지 도반들 이야기를 만화 형식으로 한데 묶어

"매일 쌀 씻으며, '눈에 보이는 것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 놓치지 않으려해"

'이란보살의 밥짓는 소리'로 1년간 本紙에 연재…총 3장에 46편 잠언글 형식

법호보다 '가야산 정진불' '두타수행자' 등으로 불리며, 대중에게는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명언을 남긴 혜암 스님. 해인사 원당암에 달마선원을 개설해 평생 눕지 않고 수행하며 후학들과 함께 용맹정진한 수행자이자 선지식인 혜암 스님에게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 우연히 서울서 마주친 혜암 스님이 "시간날 때 보살 원당암에 한번 놀러와"란 말씀에 신이난 저자는 만사를 제쳐놓고 서둘러 스님을 친견하니, 혜암 스님께서 하신 말씀. "보살, 공부하다 죽어야 혀!"

이 말씀에 수덕화 보살은 당돌하게 답한다. "죽다뇨? 공부하다 죽으면 어느생에 깨달으라고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단 보장, 스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공부하다 죽지요. 그러니까 큰 스님, 금생에 공부 다마치고 죽어라고 말해야 하는거 아니세요?" 그렇게 농으로 말했지만,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혜암 스님이 남기고 간 자취를 책속에서 그리움으로 표현한다. "스님께서는 나에게 공부하다 죽으라는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다. 오래 전에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글 쓰는 시간이 용맹정진 하는 시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고구정녕 그렇게 화두를 주신 큰 스님 정말 그립습니다"라고.

또한 저자는 조계종 제 18대 총무원장과 전계대화상을 지내시고 2012년 열반하신 성수 큰 스님에게는 사람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성수 스님께서는 흔히 도라 하면 무슨 요술이나 마술로 오해하는데,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벗어나지 않는 것, 자신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자손에게 부끄럼없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라며 "주위에 배고픈 중생들을 보면 '야, 이놈아! 젖이나 한통 먹어라' 하며 보듬어 주는 보살이 되라고 한 말씀 얹어 주셨다"고 가르침을 떠올렸다.

저자는 20여년 동안 마음맞는 도반들과 '여여회' 란 공부 모임을 만들고 가정법회를 해왔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사람 사는 맛이고 멋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가정법회 첫 법사 스님인 前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과 사제지간의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정화 6비구 중 유일한 생존자이신 스님께서는 저자의 건강을 염려해주실 정도로 지금까지도 따뜻한 마음을 내주신다.

그래서 저자는 도반들과 가끔씩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충북 단양 대흥사를 찾아가 친견하기도 한다. 책 속에는 월탄 스님과의 살뜰한 사제지간 정들이 녹아 있다.

그렇다고 책에는 큰 스님들과의 일화만 들어 있는 건 아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손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저자의 가족을 한데 묶는 강한 끈인 손녀 '소윤아가' 를 비롯해 30년째 저자의 집안 일을 거들어 주는 '박순금 아줌마' 까지 읽고 나면 마음 저 깊은 곳부터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옴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소소한 일상서 만난 가족 친구 은사 도반 등의 이야기도 담았다.

저자가 불교계에 입문해서 롤 모델로 삼은 것이 승만보살이었다. "이제 승만 보살의 삶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한 저자는 〈승만경〉을 공부하고 나서 승만보살이 정법을 수지, 유포하고 대중들과 함께 하며 상담사 역할하는 것을 보면서, 승만보살과 같은 삶으로 회향되었으면 하는 원을 세웠다.

요즘도 매일 일과 수행으로 승만보살 10대원을 읽고 있을 정도다. 승만 부인은 유마거사와 더불어 재가 불교, 즉 출가하지 않은 일반불자라도 세속의 삶을 영위하면서 성불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재가 여성불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다. 승만은 산스크리트어 슈리말라(SRIMALA)를 음역한 말로, '아름다운 꽃다발' 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도덕적인 삶을 살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화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일상생활서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베풀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겠다는 내용이 마음 속 깊이 다가왔다"며 "승만보살이 세운 10가지 큰 서원은 오늘날 승만의 후예들을 늘려가며 여성불자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으며, 나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서원을 외우며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자는 "승만보살은 여성 최초로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으며, 그 붓다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중생에게는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그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이치를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사자의 포효처럼 울려대며 오늘날까지 많은 여성불자들의 상징이 되었다"며 "여여회에서는 〈승만경〉을 배운 다음, 승만보살의 10대 발원문을 외우고, 나무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방광경을 부르면서 108배를 한다. 그리고 만나면 서로에게 '승만보살이 되십시오' 하고 축원했다"고 추억을 떠올렸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고 축제"라는 저자는 지난 40여년간 불교를 만나 행복했고 구법여행을 떠난 길에서 만난 선지식들과 삶속에서 만난 가족 및 도반들 덕분에 삶과 인생이 더 풍요로울 수 있었다고 감사 합장을 한다. 그리고 이번 〈만화경〉 책은 바로 그 증거와 결정물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덧붙인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합동 수계법회 봉행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는 11월 21일 오전 11시 특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직접 수계를 받으면
나쁜 업장이 소멸되어 세세생생 윤회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합동 수계 법회 전화 예약접수
■ **일시** : **11**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공평빌딩 6층)
■ **문의** : 031)444-9985, 9986, 9987

NAVER, YouTube 에 용화 미륵부처님 TV 검색

